

성폭행 문제 책을 통해 본격 거론된다

문학작품 주요주제로 부각... 법이론적 조명 담은 책도 출간

“사람의 손이라면 두 개였을텐데, 한꺼번에 여러 곳을 더듬었기 때문에 인간의 손이 아닌 것 같았다.”

최근 출간러시를 이루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소설책 중 「신에게는 딸이 없다」(고려원)의 한 대목이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갔던 소녀가 자신을 강간했던 남자를 “외계인”이라고 명명하는 구절이다. 작가 안드레아 드워킨의 자전적 소설인 이 작품은 성폭력이 피해자의 이성을 산산히 해체시킬 만한 끔찍한 범죄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강간당한 여성의 분노에 찬 언어로 서술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강간으로 인해 최소한의 이성마저 해체된 여성의 고백체소설인 만큼, 소설의 형식이나 구조 따위는 진즉 파산하고 문단조차 나뉘지 않았다(번역서의 문단은 “임의로” 나누었다고 역자 이혜경씨는 후기에서 밝힌다). 그 같은 형식이 저자의 운명이 외면화된 것이라면, 강간 피해자의 고통은 비명 자체이지 형상화되어질 수 없음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성폭력문제 다룬 책 최근 출간러시

성폭행 발생 건수 세계 3위. 해마다 경찰과 검찰에 고발·보고되는 성범죄 건수는 평균 5천건. 그러나 법무부 범죄백서에서는 성범죄의 여러 유형 중 강간사건의 경우, 그 신고율을 2.2%로 추정하고 있다.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환부로 드러나고 있지만, 커다란 환부는 기실 병산의 일각인 셈이다. 위험수위의 성폭력 실태가 아직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남성지배문화의 이데올로기가 매우 완강하기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사정은 우리 출판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자료집이 몇 종 있을 뿐, 연구물이라 할 만한 단행본은 전무한 형편이다. 여성학 전공자들이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 책들의 한 부분에 편입됐거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단체에서 엮어낸 ‘세미나 자료집’ ‘소책자’ 등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형태의 출판물이 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물 공백의 자리를 최근들어 외국소설 번역물이 메꿔주고 있다.

성폭력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다룬 책으로는 미국판 김보은 사건을 형상화한 「잃어버린 내 어린 날의 미소」(동아일보사), 계부의 변태적 성학대를 다룬 「The Minds of Billy Milligan」(도서출판 세계에서는 「낮선 가면」으로, 도서출판 하서에서는 「24인의 사이코」란 제목으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

9살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1년

지난 뒤 살해했던 김부남여인 사건은

성폭력이 한 생애를 얼마나 집요하게

유린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냈었다.

현재 여성단체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출판물은 전무한 형편이다. 최근들어

소설을 중심으로 몇종이 출간됐다.

출간), 앞서 언급한 「신에게는 딸이 없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것으로는 소설가 조성기씨의 「육망의 오감도」(세계사)가 전4권으로 출간돼, 바야흐로 성폭력문제가 우리 문학의 주요주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前하마드대 교수였던 수센 에스트리치가 실제로 강간당했던 “체험적 관심”을 기초로 강간죄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 특히 수사과정·기소여부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비판적 시각에서 논한 「진짜 강간(Real Rape)」도 번역돼 나왔다. 이 책은 교육과학사의 법학교양총서의 한 권으로 기획된 것. 법학분야에서도 성폭력에 관한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한 징표라 할 만하다.

「신에게는 딸이 없다」는 강간이 피해자에게 있어 얼마나 절망적이고 인간성에 대한 믿음의 파괴인가를 피를 토하듯 전해준다. 18세에 “처음” 강간을 당한 저자는 그녀가 몸담고 있던 반전단체의 ‘의식화’된 남자들조차 “그저 낄낄대며 농담만 하는 상황”에 거듭 절망해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역자 이혜경씨 또한 후기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내 딸이 강간당하는 끔찍한 꿈을 꾸 후에야 저자의 진실을 한층 가까이 알게 되었다”고 술회, 여성들의 강간에 대한 공포와 그에 못지 않은 남성지배이데올로기의 철벽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다.

「낮선 가면」 「24인의 사이코」는 정신분열적 “다중인격성 장애자”의 의식세계를 그린 실화소설. 세간의 납치와 세간의 강간, 미국의 형법상 25년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르고도 14년간의 재판기간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빌



로댕작 「저주받은 여인」.

리 밀리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계부의 질책, 사디스틱한 학대, 변태적 성행위 등이 그의 의식을 억압하여 “다중인격성 장애자”가 되어 정신분열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빌리 밀리건 역시 성폭행의 희생자로 판명된 것이다.

조성기씨의 장편 「육망의 오감도」는 우리 시대의 다양한 성폭력의 형태에 대한 조감도를 그린 작품. 전4권에 걸쳐 국가 혹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폭력, 남편이요 가장이라는 이름하에 교묘하게 저질러지는 성폭력, 사랑으로 위장한 성폭력, 아예 여자를 납치해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집단들의 성폭력, 무책임한 지식인들이 방조하고 있는 성폭력 등등 다기다종의 성폭력을 통해 작가는 우리 시대의 병적인 징후를 읽어낸다. “그러나 풍속도로서의 성폭행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다”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피해여성의 심리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진진한 천착을 통해 성폭행 현상의 이면과 배후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포착해내려 했다는 것.

이직은 외국소설번역물이 주류

「피고인」과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에서 검사와 변호사, 양측 증인들간의 설전을 통해 다루졌던 강간죄 성립요건 등의 미묘한 문제들을 책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진짜 강간」이 그것으로 우리의 성문화와 성윤리의식이 미국의 그것과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주장과 우리 여성계의 주장이 일맥상통해 주목을 끈다. 역자 이영란 교수(숙대 법학과)는 “현행법규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법의 해석과 실제적용이 더욱

문제라는 저자의 관점에 깊은 공감을 느껴 번역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뿐만 아니라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한, 여성의 동의 없는 간음도 진짜강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그에 따라 남편의 아내구타 및 강제적 성행위조차 성폭력의 범주에 당연히 포함될 터이다. 「매맞는 여자들」(텔 마틴, 한국문연)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성폭력의 여러 유형과 문제점, 그 대책을 진단한다.

그러나 이들 책들이 모두 성폭행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라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작년에 펴낸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가해자 연구”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저자 대표 최인섭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폭력성 범죄의 개별유형으로서의 강간범죄 및 강간범을 다룬 책”이라고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강간에 대한 외국의 3가지 거대이론을 서론부분에 소개, 외국에서의 연구는 갖가지 방법론까지 갖출만큼 많은 연구가 축적됐음을 알려준다. ‘폭력하위문화이론’, ‘권력통제이론’, ‘거시사회학적인 이론’이 그것이다. 거시사회학적인 이론은 다시 ‘성불평등성이론’, ‘포르노그라피와 관련한 이론’, ‘문화적 간접효과이론’, ‘사회해체에 관한 이론’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여성관계전문출판사 여성사의 온현정 대표는 “최근의 성폭력관련서 출간 러시현상에 대해 “호기심이나 상품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관된 문제의식의 꾸준한 기획물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중식 기자